
식물천연기념물의 관광자원화 방안

-보은 속리산 정이품송을 중심으로-

Plans for Tourism Resources of Plant Natural Treasures

-Concentrating on Sok-ri Mountain's Jungyeepoomsong-

이익수
청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Yk-Su Lee(tour8119@cju.ac.kr)

요약

천연기념물은 자연의 산물이며 인류가 보호해야 할 유산이다. 천연기념물 중 동물과 식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는 반드시 소멸한다. 천연기념물인 보은 속리산의 정이품송은 유일하다. 현재 정이품송은 자연재해와 병충해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으며 수령이 600년 이상이 되어 고사의 위기에 처해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희귀식물의 혈통을 보존하고 매력 있는 식물자원의 상품화, 지역주민의 대량증식에 의한 소득창출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식물유전자분석기술을 활용한 정이품송 혈통인증, 순종보존과 스토리텔링과 접목한 족보관리시스템 운용, 생산·판매·소유자 간 커뮤니티 제공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관광이벤트의 개최, 정이품송의 가치 보존과 브랜드화 등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천연기념물 | 정이품송 | 혈통인증 | 관광자원화 |

Abstract

The natural treasure is not only a product of nature and but also a heritage we need to protect. Among natural treasures, because an animal and a plant have lives, one of them are sure to be disappeared. The natural treasure, Sok-ri mountain's Jungyeepoomsong is unique. It is the only alive tree which secure a government position. Currently the Jungyeepoomsong gets into difficulty because of natural disasters and insect attacks. In addition, it is in a critical condition of dying old since the age of the tree is over 600 yea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plans for tourism resources of the Jungyeepoomsong. Because the Jungyeepoomsong is a rare variety, it can be commercialized as a plant resource. Also, it can be used as the method of creating income for local residents. To achieve research objective, this paper proposes the plans of a lineage certification using a genetic analysis technology, a genealogical table control system utilizing purebred preservation and storytelling, a database construction between producers, sellers, and owners, a tourism event, a method of building Jungyeepoomsong's brand and preserving its value.

■ keyword : | Natural Treasure | Jungyeepoomsong | lineage Certification | Plans for Tourism Resources |

I. 서론

최근 천연기념물인 서울 원효로의 백송, 보은 어암리의 백송 등이 고사하여 천연기념물 지정이 해제되었다. 천연기념물은 자연의 산물이며 인류가 보호해야 할 유산이다. 후세에 물려 줄 자원가치는 희소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멸할 가능성이 보호 우선주의를 양산하게 되었다. 천연기념물 중 동물과 식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는 반드시 소멸한다. 동종의 수가 많으면 번식에 의해 종을 유지할 수 있으나 단일 개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지속성의 한계를 가지게 마련이다.

천연기념물인 보은 속리산의 정이품송은 유일하다. 벼슬을 받은 나무로서 유일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유일하다. 현재 정이품송은 자연재해와 병충해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으며 수령이 600년 이상이 되어 고사의 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정이품송의 유전자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의 보호적 관점 때문에 활용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접근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려니와 자체의 변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이품송의 경우 관람과 사진촬영 등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속리산에 위치한 다수 관광자원의 하나로 인식되어 독립된 관광자원으로의 매력을 가지지 못했다. 더욱이 빼어난 외관을 잃어 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정이품송은 문화적 가치와 식물 유전자원적[1]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우수한 자원이다. 전설과 품계를 가지고 있으며 외관이 수려한 소나무로서 우수한 품종이다. 그러므로 정이품송이 가진 본질적 요소인 문화와 식물적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활용의 전제 조건에는 식물유전자분석기술이 있다. 왜냐하면 정이품송은 균락이 아닌 단일 개체로서 그 유전자가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이품송의 활용가치는 소나무가 가지는 정체성, 분재 및 기념수 등의 기념품, 관상수 등의 관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분재시장은 소재 및 완재시장 합산으로 286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조경수는 7,600억 원 등으로 추산되어[9] 정이품송의 상징성을 식물유전자분석기술로 입증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시장으로의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식물분야 천연기념물의 혈통 보존, 식물의 자원화, 문화관광상품화를 위한 방법론을 정이품송의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천연기념물에 관한 고찰

1. 천연기념물의 개념 및 분류

1.1 천연기념물의 개념

천연기념물은 독일의 지리학자인 A. Von Humbolt가 1799-1800년 사이에 남미적도부근을 여행할 때 오래된 나무를 보고 천연기념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1906년 독일의 H. Conwents의 제청에 따라 천연기념물 보존국이 설립되면서 법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8]. 천연기념물은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한 경이로움의 표현이며 보존의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함으로써 법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천연기념물을 향토애와 관련시킨 것은 프로이센으로서 1906년 '프로이센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국립연구소'를 발족하여 특색 있는 향토의 자연물로서 지역의 풍경·지질·동물 등 본래의 장소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10]. 이의 정의에 따르면 천연기념물은 한 지역을 대표하는 고유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33년 8월 '조선고적유물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의 공포로 인해 동물, 지질, 광물, 식물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았으며 1962년 12월 3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259건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었다[5]. 문화제청에서 지정·관리하는 천연기념물은 무기적·생물학적·지질학적·지문학적 생성물로서 문화적·역사적·가치가 큰 것과 과학상·관상상·경관보존상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연물로서 대표성, 문화성, 상징성 등 각종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

이것은 1차적인 본래의 가치와 2차적 가치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보존적 가치를 강조한 정의로는 '천연기념물은 한 나라, 한 향토의 천연물로서 그 나라 향토의 자연계를 대표할 수 있는 고유한 동물·식물·광물·지질과 숲·원시림·자연풍경 등으로서 주위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현재까지 인위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 있는 것[3]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은 1차적으로 보존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합리적 활용은 2차적인 문제로서 천연기념물이 가진 본연의 가치와 상징성에서 파생되는 가치를 통해 다각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훼손과 소멸은 천연기념물로서의 존재적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원형의 보존과 부가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더욱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1.2 분류

천연기념물은 식물, 동물, 광물,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나눈다. 식물은 거수·노수·명목, 특수한 식물군, 분포상의 한계지, 자생지, 고유식물 및 희귀식물 등으로 구분되며 동물은 고유종, 진귀한 동물, 분포상의 한계, 서식지와 도래지, 특유한 축양동물 등으로 구분되고 광물 분야는 지질광물, 동굴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천연기념물이 될 만한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 천연기념물이라면 지역 내의 일체의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자는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이 천연보호구역이다.

천연기념물의 분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천연기념물의 분류[3]

구분	종류	지정 예
식물 분야	거수노수명목	• 용문사 은행나무(제30호) • 하청리 느티나무(제181호) • 보은군 정이품송(제103호)
	특수한 식물군	• 임종 : 성남리 성황림(제93호) • 원시림 : 울릉군 성인봉(제189호) • 인공림 : 방풍림, 방사림, 호안림, 풍치림, 어촌림
	분포상의 한계지	• 섬섬의 파초일엽 • 북가시나무 자생북한지 • 탕자나무 자생북한지
	자생지	• 촉백나무 : 대구시도동, 단양영천리 • 흑백나무 : 영양 감천동 • 향나무 : 울릉군 남양동, 울릉군 대하동

	고유식물 및 희귀종	• 미선나무 : 장연면 송덕리(특산) • 너도밤나무 : 울릉군 성인봉(특산) • 한란 : 제주도 남제주군(희귀)
동물 분야	고유종	• 크낙새 : 경기도양주군 광릉숲 • 황소개리 : 한강수역 • 사향노루 : 지리산, 경기도광릉, 목포
	진귀한 동물	• 따오기, 황새, 멧황새 • 팔색조, 저어새, 느시 • 흑비둘기, 산양
	분포상의 한계	• 열목어 : 대현리 열목어 • 장수하늘소 : 강원도 추전리 • 쇠고래 : 울산
	동물의 서식지와 도래지	• 무태장어 서식지 : 서귀포시 천지연 • 철새도래지
	특유한 축양동물	• 오골계 : 동래군 지장면 • 진돗개 : 진도
광물 및 동굴 분야	지질광물	• 구상 화강암 : 경북 상주군 운평리 • 화석사리포함지 : 경북왜관 금무봉 • 패류화석 : 제주도 서귀포
	동굴	• 석회동굴 : 울진 성류굴, 단양 고수굴 • 용암동굴 : 만장굴, 사굴, 협재굴
천연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 제주도 한라산 • 전남의 홍도 • 강원도 대암산향로봉

2. 식물천연기념물의 가치

식물분야의 천연기념물 지정현황은 총 지정건수의 65.2%에 해당하는 219건에 이르고 있으며 노거수 142, 희귀식물자생지 17, 유용식물자생지 14, 자생식물복합계지 13, 학술림 16, 방풍림 5, 어부림 8, 호안림 4 등 219개소에 이른다[2].

식물천연기념물 중 대표적인 노거수와 희귀식물의 특징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노거수 및 희귀식물의 특성[13]

분류	수종	명칭	특성
노거수	은행나무	용문사 은행나무(제30호)	• 수령 1,100년, 높이 67미터, 둘레 15.2미터 • 마의태자의 전설, 의상대사의 전설 • 인간과 함께 한 역사문화자원 • 생물학적 자료로서 가치 높음
		서울문묘 은행나무(제59호)	• 수령 400년, 높이 26미터, 둘레 12.09미터 • 유주(兪株)가 잘 발달됨 • 웅장하고 수관의 폭이 넓음
		두서면 은행나무(제64호)	• 수령 530년, 높이 22미터, 둘레 11.9미터 • 조선시대 이판윤과의 연관성과 마을의 정자목으로 활용 • 득남의 전설을 지님

노거수	소나무	운문사 처진소나무 (제18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6미터, 둘레 2.9미터 • 수관이 낮게 옆으로 퍼지는 모습 • 고승과의 전설과 스님들의 보살핌
		괴산청천면 소나무 (제29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령 600년, 높이 13.5미터, 둘레 4.91미터 • 나무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왕소나무, 용송 등으로 불림 •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
		예천감천면 석송령 (제29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령 600년, 높이 10미터, 둘레 1.9미터 • 석평마을에 사는 영감이 있는 소나무라는 뜻 • 재산을 가진 나무로서 장학금 지급
	느티나무	삼척도계읍 느티나무 (제9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령 1,000년, 높이 20미터, 둘레 7.5미터 • 서낭당 나무로 섬김 • 생물학적 가치 큼, 신성시 해 온 나무
		안동녹전면 느티나무 (제27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령 600년, 높이 28미터, 둘레 9.5미터 •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김 • 민속적 생물학적 가치 높음
		담양대전면 느티나무 (제28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령 600년, 높이 34미터, 둘레 8.79미터 • 조선 태조의 전설 : 기념수 • 역사적 자료 가치, 생물학적 보존 가치
희귀 식물	미선나무	과산미선나무 자생지 (제14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서만 자람 • 높이 1~1.5미터, 열매의 모양이 부채의 모양을 함 • 희귀성과 식물 분류 및 분포학적 가치가 높음
	한란	제주도한란 (제19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이 12월~1월에 피어 한란이라 명명 •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에서만 볼 수 있음 • 종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모감주 나무	안면도 모감주나무 (제13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의 길이 120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미터 • 방풍림의 역할 • 자연적으로 자생, 학술적 연구가치 높음

이상의 예에서처럼 식물천연기념물인 노거수와 희귀 식물은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6]. 첫째, 노거수는 우리나라 동종 식물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존재한다. 같은 종의 나무가 전 국토에 골고루 산재해 있을지라도 동종의 식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세월을 간직한 크기와 역사성에 있다.

둘째, 노거수는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소이다. 노거수는 정자목, 당산목, 성황목, 향교나 사찰의 정원목으로 보존된 것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일정한 구역의 경관을 주도하거나 보조경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역사성과 문화성을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 노거수는 지역의 토속적 문화를 담고 있으며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개발의 논리와 보존의 철학 사이에서 선택되어진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지역특성을 보유한 식물유전자원이다. 노거수나 희귀식물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기후, 지형, 기상 등의 지역적 특성을 수용해야 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강한 내성을 가진 식물유전자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노거수와 희귀식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식물의 특성 상 생명을 가지고 있어 언젠가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보존과 보호의 이념이 요구되는 고귀성을 지니고 있다.

여섯째, 지역주민의 삶과 애환이 담긴 이야기 거리를 담고 있다. 대부분의 노거수는 지역주민의 신앙의 대상이나 상징물로서 주민들의 정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설화와 민담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III. 보은 속리산 정이품송 현황

1. 정이품송의 천연기념물 지정배경

정이품송은 천연기념물 제103호로서 1962. 12.03일에 지정받았다. 정이품송은 자연유산으로서 천연기념물에 속하며 문화역사 기념물로서 민속으로 분류된다. 위치는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상관리 17-3번지이며 법주사가 소유하고 보은군이 관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464년에 신병에 고통 받던 세조가 온양온천과 속리산을 찾아 치료를 할 때 이 나무 아래에 이르러 타고 가던 연이 나뭇가지에 걸릴 것을 염려하여 '연 걸린다'라고 하자 신기하게도 늘어졌던 나뭇가지가 스스로 하늘을 향하여 무사히 통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로 돌아갈 때는 마침 쏟아지는 소나기를 이 나무 아래서 피할 수 있었다. 이에 소나무를 신기하고 기특하게 여겨 나무에 대하여 전무후무한 벼슬을 내린 전설이 깃들여 있다[12].

정이품송은 높이가 15미터에 이르고 가슴높이의 둘레는 4.7미터에 이른다. 가지의 길이는 동으로 10.3미터, 서로 9.6미터, 남으로 9.0미터, 북으로 10미터 등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가 수관이 우산을 편 모양으로 정제하고 무척 아름답다.

정이품송의 천연기념물 지정배경[11]은 나무의 모양이 매우 아름답고 크고 오래되어 생물학 및 생물유전자

원으로서의 가치가 크며 임금을 섬기는 시대상이 잘 전해지는 전설을 가지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크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2. 관리 및 활용

정이품송은 수령이 600년으로 용문사의 은행나무와 쌍벽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노거수에 해당하여 보존을 위한 다양한 관리가 시행되었다. 1982년에는 높이 18미터의 8각주형의 철골시설물을 세우고 방충망을 설치하여 솔잎혹파리의 침입을 차단하였으며(문화재청) 1987년에는 원활한 물의 공급을 위해 양수펌프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고 1994년에는 병충해방제와 늘어진 가지에 대한 지주목을 설치하고 부패가지에 대해서는 외과수술을 하였다. 자연재해도 잇달아 1993년 이후 4차례의 강풍과 폭설에 의해 원추형 대칭을 이루던 큰 가지 4개중 3개를 잃었으며 부러진 정이품송의 절반이 부패하여 수명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매일경제, 2007년 4월 26일자)

노거수가 사라질 것을 염려하여 다양한 보존 방법이 이루어졌다. 1980년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정이품송 솔방울 씨를 싹틔워 5그루의 자목을 생산하여 후계목으로 키운 후 1996년부터 정이품송과 함께 자라게 하다가 정이품송의 생육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을 만큼 성장하여 2007년도에 솔향공원에 3그루, 대전천연기념물 보호센터에 1그루를 식재하고 1그루는 존치했다. 그러나 이 후계목은 모계유전혈통으로서 아비나무의 확인이 어렵고 혈통가계도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2001년 국립산림과학원은 정이품송과 삼척 중경묘 부근의 금강송 부인소나무를 교배하여 96그루의 친자를 생산하였으며 2006년 4월 5일에는 청남대에 후계목 3그루를 식목하기도 하였다. 이 소나무는 혈통가계도 작성이 용이하고 스스로의 상징적 가치 때문에 역사적 장소에 이식할 예정으로 있다.

보은군의 군마스코트는 정이와 송이로서 정이품송을 의인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보은의 캐릭터는 보은군에 대한 홍보활동과 사업내용 등의 메시지 전달을 강화하며 보조적 역할로서 대민행정과 봉사행정의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12].

보은군은 정이품송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병충해예방, 외과적 수술, 지주목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북 보은을 알리기 위한 캐릭터로서 정이품송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수령 600년이 된 나무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나 생명체인 나무는 생로병사의 흐름 속에서 언젠가는 형태가 사라질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정이품송의 가치를 이어 줄 후손이 필요하며 이는 자목의 생산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보은군은 보은의 캐릭터로서 정이품송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이품송에 대한 대내외적 인지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이품송 자체가 매력적인 대상으로서 인식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이품송이 상징하는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그 유용성을 알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IV. 관광자원화 방안

1. 방향

1.1 정이품송의 상징성 제고

정이품송은 소나무의 일종이며 역사적 전설이 있는 문화적 산물이다. 우리민족은 소나무를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상되는 대상으로 삼았으며 은근과 끈기, 우직한 충성심 등을 소나무의 덕목으로 들고 있다. 이에 정이품송이라는 벼슬까지 받은 유일한 나무이다. 정이품송은 소나무의 상징성과 희귀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에서 자원화해야 한다.

1.2 자목의 가치 향상

정이품송은 생명을 가진 나무로서 자체의 상징성이 계승되어야 하며 그의 혈통이 보존되어야 한다. 정이품송의 혈통보존사업은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되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이품송의 자목은 외관과 역사적 스토리를 부목으로부터 이어받아 충북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의 가치가 높고 고사되는 노거수에 대한 향수의 대체물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소

나무는 전통적인 조경수로서 정이품송의 브랜드가치를 활용한 관상수로서의 상품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1.3 관광적 활용

정이품송이 문화적산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과의 접목을 꾀해야 한다. 정이품송은 하나의 개체로서 볼 수 있으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인간의 삶의 영역이다. 문화예술작품들도 뿌리가 있으나 천연기념물로서의 정이품송은 현재의 위치에서 가치가 더욱 크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의 자연영역 안에서 매력요인을 발굴하여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2. 방안

2.1 식물유전자분석기술을 활용한 혈통인증

식물유전자란 식물의 유전정보를 담당하는 구조단위(DNA로 구성)로서 유전형질을 결정하는 인자를 일컫는다[7]. 정이품송의 식물유전자를 분석하여 유전자지도를 작성하고 순종의 정이품송과 자목 및 복제목의 유전자정보를 비교하여 정이품송의 혈통을 인증할 수 있다.

2.2 순종보존, 스토리텔링과 접목한 족보관리시스템

순종보존을 위한 복제목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유전자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한편 우수한 혈통과의 교배를 통해 정이품송의 유전적 형질이 인증되어지는 자목에 대해 족보가 작성되어야 한다. 족보를 작성할 때에는 모계와 부계의 혈통은 물론 문화적 관점에서의 이야기가 수반되는 스토리텔링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이름난 충신의 이야기를 정이품송을 소재로 의인화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2.3 정이품송 커뮤니티제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이품송의 판매는 분재와 조경수가 주를 이룬다. 판매를 위한 생산방식은 소량생산과 대량생산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소량생산은 분재형태로 제공되거나 기념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혈통이 우수한 것이다. 대량생산의 경우는 복제목과 자목 중 정이품송의

유전형질이 소량 포함된 것이나 정이품송의 브랜드로서 인정받은 것으로 대부분 조경수로서 다량 식재될 때 활용할 수 있다.

정이품송 혈통 분양사업을 위한 생산자와 판매자 그리고 소유자 간의 커뮤니티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3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고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생산-판매-소유의 관계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개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2.4 문화관광이벤트의 개최

정이품송 문화자원의 가치 향상과 확산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역내로 유인할 수 있는 문화관광이벤트가 요구된다. 정이품송의 정신을 만끽하고 소유한 정이품송의 자목과 복제목을 교환, 판매, 구매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한다. 소장한 정이품송의 복제목과 자목의 가치와 우위를 평가 받을 수 있는 품평회도 될 수 있으며 인간사의 관혼상제를 포함하는 종친회, 기념일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구현할 수 있다.

2.5 정이품송의 가치 보존과 브랜드화

정이품송은 죽음으로서 생애를 마치나 이름을 남기고 후계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지속하길 바랄 것이다.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오늘날의 늙은 모습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정이품송도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스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옳다. 정이품송이 사라진 자리에 묘를 쓰고 지속적으로 기일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가치 보존의 방안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 놓은 정이품송의 가치와 후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련의 시스템을 통하여 정이품송을 브랜드화 하여 고부가가치를 양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결론

본 논문은 천연기념물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보은 속리산의 정이품송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방향과 방

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이품송에 대한 본질을 연구하여 문화적요소로서 세조와 관련 있는 전설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수관이 아름다운 소나무로서 생물유전자원적 가치도 높음을 알게 되었다. 문화적, 생물학적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60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연재해와 노령화로 인해 병들고 고사되어 가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정이품송 자체의 생명연장과 혈통의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정이품송에는 의학적, 기술적 방법이 동원되었으며 혈통의 보존을 위해 복제목과 자목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물유전자분석기술과 증식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매우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는 복제목과 자목을 생산하여 보존한다는 차원을 넘어 정이품송의 브랜드를 관광자원화 한다는 목표 아래 상징성의 제고, 자목 가치의 향상, 관광적 활용 등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식물유전자분석기술을 활용한 정이품송 혈통인증,

순종보존과 스토리텔링과 접목한 족보관리시스템 운용, 생산·판매·소유자 간 커뮤니티 제공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관광이벤트의 개최, 정이품송의 가치 보존과 브랜드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지역 곳곳에 소재해 있는 희귀식물과 노거수로 대표되는 천연기념물과 지역특산물 등의 식물유전자원이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거듭나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혈통의 보존, 지역랜드마크 등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김태규, 김기대, 노환춘, 김말희, 이은영, 이병운, 이민호, 오경희,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 동향과 생물다양성 연구”, 한국자원식물학회, 한국자원식물학회지, 제16권, 제3호, pp.170-172, 2003.

[2] 박상원,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의 선정 평가기법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3] 서태양, *관광자원론*, 대왕사, 2005.

[4] 안완식, *식물유전자원의 수집 보존 이용*, 동아사이언스 과학동아, 1988.

[5] 안영희, 최광을, “경기도 안성지역의 노거수 식물유전자원 분포 및 실태”, 한국자원식물학회, 한국자원식물학회지, 제16권, 제3호, p.100, 2003.

[6] 이정환, 강호철, “천연기념물 해설판 내용에 대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24, No.2, p.34, 2006.

[7] 임용표, “식물생명공학의미래”, 한국원예학회, 원예과학기술지, p.279, 1999(12).

[8] 정경숙, “관광자원으로서의 천연기념물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연구학회 관광지리학연구, 제4호, p.294, 1994.

[9] 농림부, *임업통계연보*, 2004.

[10] *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05.

[11] <http://www.cha.go.kr>

[12] <http://www.tourboeun.go.kr>

[13] <http://nm.nktech.net>

저 자 소개

이 익 수(Yk-Su Lee)

정희원



- 1995년 2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0년 8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관광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관광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 관광자원, 문화관광, 관광정책